

#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허동현\* · 오현주\*\*

##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한 2024년도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유효표본 28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등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 등의 경로를 통한 매개로 이를 발현하는 역할,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청년소상공인이 사업철학, 사업전략 등 경영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몰입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창업교육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탐색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행동, 철학, 태도를 나타내는 개인의 의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지적 구조를 분석해 청년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론적·학문적 틀을 공고히 하는 연구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제어> 청년소상공인,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창업의도

논문투고일 : 2026. 5. . 1차 수정일 : 2026. . . 게재확정일 : 2026. . .

\* (주)선진이앤에스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제1저자 (ceodhheo@naver.com)

\*\* 계명문화대학교 항공여행서비스과 교수, 경영학 박사, 교신저자 (ohj430@kmcu.ac.kr)

## I. 서론

글로벌화 한 경제 활동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구조나 기능 면에서 가치 창출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도 취직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기술 및 그 인접 관련 창업을 통해 여러 형태로 확산하고 파급되면서 유연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창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 등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Sobel and Hall 2008; Shane 2009), 일자리 창출에 공헌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Nayak et al. 2018). 초기 창업은 창업자 본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나, 성장해 기업으로 확장되면 시장으로 진입한다. 창업기업이 각 고유영역별로 시장에서 활약하고 경쟁이 펼쳐진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어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효율이 증대하고 기술력 강화에 힘입어 고용이 확대되는 성과를 가져오므로(Fritsch and Mueller 2004) 결국 창업이 고용을 창출한다(Fairlie and Miranda 2017).

최근 대학생 등 청년들은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는 창업이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소자본 창업을 선호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자본이 축적되면 소공인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나 과거 창업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은 자원을 동원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실물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풀뿌리 경제에서 중요하다(Mehrotra et al. 2018; 전덕영·윤병섭 2020). Rantanen(2013)은 창업이 사회 경쟁력,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의 핵심요소임과 동시에 개인적 수준에서는 취업 수단이라 하였다. 이는 소상공인의 창업이 전통적인 창업을 벗어나 새로운 것의 고안 또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거나 적용해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Bălăceanu and Apostol 2013).

창업자, 대학 등 창업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창업생태계는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청년 창업생태계의 경우 구성요소 및 환경의 질적 및 정책적 요인이 창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창업가의 연령별 추이는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창업가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도전의식 부족과 사회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의 부족이 청년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저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기술창업은 부진하고 생계형 창업비중이 높은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청년은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창업은 창업과정에 대한 이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의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소상공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등의 변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선행연구

는 소상공인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구 폭을 넓혀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매우 미흡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보다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도출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창업가에게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공하는 창업 방향을 제시한다는 연구공헌이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계획적인 창업의도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창업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 II. 청년창업생태계의 특징

### 1. 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생태계는 생물공동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고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 사이 서로 체계적인 상호관계를 이룬다. Aleisa et al.(2013)는 창업생태계를 하나의 사회로 구성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여러 멘토들과 자본력을 갖춘 인큐베이터, 그리고 시장의 초기 수용자들과 미디어로 구성된 사회로 정의하였다. 청년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아이디어 창출집단, 창업지원기관, 자금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한다(양현봉·박종복 2009). 생물학적 생태계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접근해 본다면, 청년 창업생태계는 청년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이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되거나 공유 및 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성장과 진화 및 융합 그리고 분화가 이루어지는 자기증식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임채운, 2011). 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예비청년기업가, 청년창업기업, 정책자금 공여기관 등이다. 환경요소로 사회여건,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 등 회수시장, 창업지원인프라, 자본시장과 소비시장 등이 청년창업생태계에 포함된다(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창업생태계는 청년기업가를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초기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와 창업기업이 성장하여 성공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창업생태계가 성장하려면 국내외 창업생태계 동향을 살펴보고 진단하여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기술력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되어야 한다. 창업지원 정책은 단순히 창업을 늘리는 것보다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있는 창

업기업을 발굴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되 청년소상공인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창업률의 유지, 즉 적정한 수준의 창업률과 폐업률의 관리가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 자금지원, 멘토링, 교육 등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직하게 실패한 기업가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며, 실패 경험을 자산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 및 용자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원뿐만 아니라 동문기업과 청년창업기업 사이 멘토-멘티 관계를 엮어 주는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 2. 청년창업생태계의 특징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대학 등 창업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자의 범위를 청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청년창업생태계라고 부른다(관계부처 합동 2011.4.15.). 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환경의 질적 및 정책적 요인은 창업생태계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에서 언급된 다양한 인적, 금융 및 지원정책을 통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나, 국내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은 창업생태계의 가치 환산 금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먼저, 창업생태계의 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창업가의 연령별 추이는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창업가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청년의 도전의식 부족과 안정적인 직장의 선호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의 빈약(이대기 2014),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의 부족 등이 청년창업에 도전하는 의지를 꺾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 청년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창업은 부진한 현상이다. 창업진흥원(2024)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경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창업 대비 기술창업의 비중이 .9로서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의 평균 3.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창업생태계의 금융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2015년 기준, %)은 한국이 .13으로 미국 .33 및 중국 .24 등과 비교하면 경제규모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아직도 투자보다 대출형태의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품개발 이후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벤처투자과 정책금융의 연계성 부족이 혁신성 및 성장성 있는 기업에 효율적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여건이다(관계부처 합동 2017.11.2.).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보증연계 후속투자 증대효과가 있으나(권홍순·윤병섭 2019; 김정향·윤병섭 2024; 전덕영 외 2025) 확대에는 소극적이다.

### III. 선행연구

#### 1. 창업동기와 관련한 선행연구

창업동기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자극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Ryan and Deci(2000)은 자기결정이론에 기반한 동기부여와 건강한 심리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맥락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 자기 조절, 웰빙(well-being)을 향상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능력, 자율성, 관련성 등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동기부여와 정신건강이 향상되고 좌절되면 동기부여와 웰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Locke and Latham(2004), Carsrud and Brännback(2009), Carsrud and Brännback(2011), 김경희·김진영(2011), 윤남수(2012), 반성식 외(2013) 등은 창업동기의 하위변수로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를 채택하였다. 기회를 인식한 사람은 고용인으로부터 더 많은 옵션과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창업가를 선택한다. 창업가에게는 목적달성을 위해 성취성과 같은 동기부여가 존재한다. 목적의 중요성과 그 영향이 동기부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Locke and Latham 2004).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에서 독립동기가 기회동기, 성취동기보다 우선하는 요인이다. 독립동기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과업 및 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Carsrud and Brännback(2011)는 대개 창업가는 돈, 권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성과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내적으로는 실패를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인지적 불협화를 최소화하며, 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 및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전이나 주식옵션 등의 보상이 동기를 부여한다(Carsrud and Brännback 2009).

#### 2.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선행연구

기업가정신은 조직의 생존,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assen 2007). 기업가정신은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 및 조직에서 혁신의 기회를 탐색 및 포착하고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혁신지향적인 문화를 갖게 하며(Antoncic and Prodan 2008),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관리하는 활동과 연계된다. 혁신은 비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누구나 발전이라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즉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혁신이다. Schumpeter(1934; 1942)의 혁신 5가지 유형은 새로운 제품의 출시,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출현, 새로운 원재료의 공급, 새로운 조직의 형성 등이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조직구성원 각각

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Miller(1983), Covin and Slevin(1986) 등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Lumpkin and Dess(1996)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자율성과 경쟁적인 공격성을 추가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분류하였고(이승일 2006; 원혜숙 2014; 허봉선 2015; 최문경 2015; 안성영 2015, 전승연 2018)하였으며, 양현주(2012), 정숙균(2015) 등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추구성으로 규정하였다. 임진혁(2017)은 혁신성, 자율성, 경쟁적 적극성, 위험감수성, 미래지향성으로 정의하였고 임정희(2018)는 자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제시하였다.

### 3. 창업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창업 계획,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훈련하며,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창업 지식을 터득하고 자질을 함양하며 기술을 배우고 훈련해 기회 인식과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창업교육의 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이며, 창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활동(나상균 2016)으로 이론, 실습,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 실패를 예방한다. 창업교육은 각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교육, 각 지자체의 창업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기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행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창업교육에 대해 Bechard and Toulouse(1998)는 소기업 개발, 비즈니스 창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식화된 가르침이라고 정의하였고, Kourilsky(1995)는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Rac(2004)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적인 창업교육은 미래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Dutta et al. 2011), 교육으로 자연인인 개인이 기업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Walter and Block 2016). 따라서 창업교육은 다른 교육보다 차별적으로 상황과 현실에 입각한 교과 구성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대학은 창업을 보편화하고 창업을 당연히 여기는 등 친화적 창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식 이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수하게 창업교육을 받은 자가 지역에 유입되어 지역을 발전시킴으로 대학 창업교육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Rippa and Secundo 2019). 이러한 추이는 대학의 창업교육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의 시작점이자 실질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촉진을 일으키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제시해 변화하는 교과과정으로 아이디어 창출을 이끈다(Becker et al. 2017). Hallam et al.(2008)은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행동학적 이론을 토대로 대학 내 창업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대학 내 창업교육, 창업이벤트, 창업활동 등이 대학생 창업 활성화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변수

가 되고 있다. 창업교육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과 관련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예비창업가의 창업의도를 높인다(정헌배 2017).

#### 4. 창업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의도는 어떤 동기에 기초하여 어떤 목적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하여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이라 정의할 수 있다(심완섭·이은재 2015).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창업의도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이며(Crant 1996), 새로운 기업 설립에 대한 행동, 철학, 태도를 나타낸다(Morris and Sexton 1996). 창업의도 연구모델은 계획행동이론(Ajzen 1991), 창업이벤트 모델(Shapero and Shokol 1982), 창업의도모델(Liñán and Chen 2009) 등이 있다.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모델의 설명력이 정교하고 일관된 결과를 계획된 행동연구를 통해서 창업의도를 나타내고 있다(Fayolle et al. 2006; Shook et al. 2003). Shapero and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은 기업가의 독립심, 창업위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가정하는 이론이다. Shapero and Sokol(1982)는 창업이벤트 모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소망성, 행동성향, 지각된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Liñán and Chen(2009)의 창업의도 모델은 계획행동이론(TPB)의 확장모델로써 개인이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을 나타내려면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업의도가 있어야 창업행동으로 나타나 창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5.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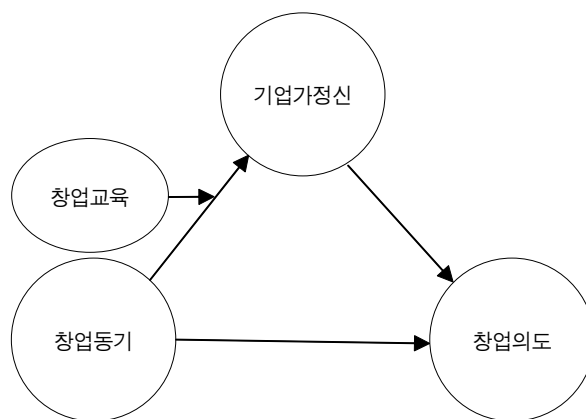
창업자, 대학 등 창업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창업생태계는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청년 창업생태계의 경우 구성요소 및 환경의 질적 및 정책적 요인이 창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창업가의 연령별 추이는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창업가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도전의식 부족과 사회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의 부족이 청년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저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기술창업은 부진하고 생계형 창업비중이 높은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청년은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창업은 창업과정에 대한 이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의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살펴본 선행연구는 소상공인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구 폭을 넓혀야 함을 보여준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은 과거 경제를 개발시키던 개발시기의 기업가정신과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기업가정신이 구성된 각각의 인식으로 결정되나 개인과 조직의 일관된 기업가정신이 조직의 생존,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동기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자극함에서 나타난다. 청년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기업가정신 이외에도 매우 많으나 실증연구가 미흡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보다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도출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창업가에게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성공하는 창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연구방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계획적인 창업의도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창업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 IV. 연구모형과 자료수집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와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rant(1996), 박남규(2014), 임아름(2015), 서성열(2018)의 연구가 사용한 변수를 도입하였다. 독립변수는 창업동기이며, 종속변수는 창업의도이다. 매개변수는 기업가정신, 조절변수는 창업교육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동기의 하위변수는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이며,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 가.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허동현 · 오현주 2025)

창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창업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창업가 개인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창업의도라 한다(이상길 2018). 창업의도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이며(Crant 1996), 새로운 기업 설립에 대한 행동, 철학, 태도를 나타낸다(Morris and Sexton 1996). 창업의도는 직장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의도이다(Krueger, Jr. et al. 2000). 창업의도는 미래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창업을 선택하려는 계획이나 욕구와 같은 창업의 한 행동으로 새로운 창업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Tran and Von Korfflesch 2016). 윤남수(2012)는 독립변수 기업가 정신, 창업동기와 종속변수 창업의도가 유효한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분석하면서 기업 또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창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ocke and Latham(2004), Carsrud et al.(2009), Carsrud and Brännback(2011), 김경희·김진영(2011), 윤남수(2012), 반성식 외(2013) 등은 창업동기의 하위변수로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가설

기업가정신은 조직의 생존,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assen 2007). 기업가정신은 신규 사업을 만드는 활동과 혁신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Baron and Shane 2005; 박동수·구언희 2007)을 알 수 있다. 즉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혁신지향적인 문화를 갖게 하며(Antoncic and Prodan 2008),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관리하는 활동과 연계된다. Brockhaus(1982), Miller(1983), Covin and Slevin(1986), Brockhaus and Horwitz(1986), Zahra and Covin(1995), Kets de Vries and Miller(1997), Dickson and Weaver(1997), Marino et al.(2002), Tarabishy et al.(2005)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2]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다.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가설

조문연(2014)은 창업준비기간에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창업교육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조병주(1996)는 창업교육에 대하여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교육은 개인에게 창업하려는 동기를 자극시켜 창업의도를 촉진시키고 창업활동과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유태(2014)는 대학생의 다양한 창업교육경험이 창업스킬과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으며, Turker and Selcuk(2009)는 대학생의 창업교육지원이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대학생에 대한 창업교육지원,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적 지원 그리고 환경적 지원이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재환·김용태(2009)는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제고시키고 창업교육의 만족도는 창업의도와 창업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Clark et al.(1984), Timmons et al.(1987) 등은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촉진시킨다고 실증하였다. Kourilsky(1995)는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Rac(2004)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Ronstadt(1985)는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화,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Timmons and Spinelli, Jr.(2008)는 창업교육을 통한 경영방법과 동기부여에 대한 창업교육은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청년에게 창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라.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가설

양재장·남중현(2015)은 창업동기와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창업 준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동기는 창업 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는 윤지영·이은정(2013), 이예진·이기학(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창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 준비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4]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마.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가설

본 연구는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5]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가. 독립변수: 창업동기

##### (1) 기회동기

본 연구는 기회동기를 창업가가 창업하는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포착해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현재하고 있는 직무에 만족을 하지 못해 창업을 하는지, ② 창업을 하면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③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므로 창업을 할 것 같은지, ④ 창업을 할 경우에 주위의 권유가 많을 것 같은지, ⑤ 과거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좋아졌기에 창업을 할 것 같은지 등이다.

##### (2) 성취동기

본 연구는 성취동기를 창업가들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자유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창업을 하는 것인지, ② 기존의 소득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어서인지, ③ 창업하면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④ 자신의 통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창업이라고 생각하는지, ⑤ 창업하면 성취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다.

##### (3) 독립동기

본 연구는 독립동기를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일과 생활을 수행하려 하는 욕구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지, ② 창업으로 나의 기업을 큰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③ 창업을 하면 좋아하는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④ 창업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⑤ 창업을 통하여 내가 속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다.

#### 나. 매개변수: 기업가정신

##### (1) 혁신성

본 연구는 혁신성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장지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적용하고 활용하는 조직구성원의 성향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지, ② 혁신을 위해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에 노력하는지, ③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지,

④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현시 빨리 사용하는 편인지, ⑤ 기회를 포착하는 혁신성과 창의성이 있는지 등이다.

(2) 위험감수성

본 연구는 위험감수성을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 구성원의 성향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비교적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지, ② 사업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지, ③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도 불안하지 않게 극복하는 편인지, ④ 다소 위험하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추구하는지, 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편인지 등이다.

(3) 진취성

본 연구는 진취성을 신규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자보다 먼저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하여 시장을 주도하려는 조직구성원의 성향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무슨 일에 결심이나 결정하면 자신있게 실천하는지, ② 목표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지, ③ 호기심이 많은 편이며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지, ④ 나의 일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간과 경력을 추구하는지, 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적은 편인지 등이다.

다. 조절변수: 창업교육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미래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 실무적 자질과 태도 등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교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르치는 교육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교육으로 사회 속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② 창업교육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었는지, ③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실제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④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⑤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업운영 및 사업계획에 도움을 받았는지 등이다.

라. 종속변수: 창업의도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개인이 창업을 실현하려는 행동, 철학, 태도 등으로 표출하는 동기적 행동성향의 가능성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다음 5문항을 측정항목으로 설문한다. 설문내용은 ① 창업을 위해 관련된 학습이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지, ② 지식이나 경력을 살려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 ③ 관심이 있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창업하고 싶은지, ④ 좋아하고

잘하며 즐길 수 있는 일에 창업하고 싶은지, ⑤ 창업을 해서 성공한 청년창업가가 되고 싶은지 등이다.

<표 1> 설문지의 조작적 정의

변수		문항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 동기	기회동기	5	창업가가 창업하는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포착해 실천으로 옮기는 것	Hay(2002), Locke and Latham(2004), Carsrud and Brännback(2009; 2011), 윤남수(2012), 반성식 외(2013)
		성취동기	5	창업가들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부여	
		독립동기	5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일과 생활을 수행하려 하는 욕구	
매개 변수	기업가 정신	혁신성	5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장 지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적용하고 활용하는 조직구성원의 성향	Miller(1983), Sexton and Bowman(1985), Covin and Slevin(1989), Lumpkin and Dess(1996), Lassen et al.(2006), 윤백중(2012), 강재학(2016), 김우중(2016), 김정곤(2017)
		위험 감수성	5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구성원의 성향	
		진취성	5	신규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자보다 먼저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하여 시장을 주도하려는 조직구성원의 성향	
조절 변수	창업교육	5	미래의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 실무적 자질과 태도 등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교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르치는 교육	Hmicleski and Corbett(2006), Walter and Block(2016), 이혜진·김진수(2019), 한가록 외(2021)	
종속 변수	창업의도	5	창업의도를 개인이 창업을 실현하려는 행동, 철학, 태도 등으로 표출하는 동기적 행동성향의 가능성 정도로 조작적 정의	Bird(1988), 윤백중(2012), 박지유(2014)	
통제 변수	일반문항	5	성별, 연령, 학력, 업종, 종업원 수		
설문 문항 수		35			

## 마. 통제변수

### (1) 성별

Shinnar et al.(2014)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창업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그램 설계 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성별을 남성 1, 여성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 (2) 연령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경상북도 문경, 의성 등 일부 지자체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연령을 ① 19~24세, ② 25~29세, ③ 30~34세, ④ 35~39세, ⑤ 40~45세로 구분한다.

(3) 학력

Cooper and Gimeno-Gascón(1992), Cooper et al.(1994) 등은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극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Cooper(1985), Sandberg and Hofer(1987) 등은 창업자의 학력이 경영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학력을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졸업 이상, ④ 석사, ⑤ 박사로 구분하였다. 중퇴자 또는 과정 중인 자는 최종졸업 기준이다.

(4) 업종

Rees and Shah(1986)는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업종을 ① 제조업, ② 도·소매업, ③ 서비스업, ④ 정보통신업, ⑤ 숙박, 음식점업 중 응답자가 관심을 가지는 창업 업종을 질문하였다.

(5) 종업원 수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핵심인재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업원 수를 ① 1명~3명, ② 4명~5명, ③ 6명~7명, ④ 7명~9명으로 분류하고 이를 설문하였다. 소상공인 업종의 종업원 수를 보면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은 5인 미만 사업체이다.

##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 가. 연구대상과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기업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교육받은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가이다.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운 연구가설이 도입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창업교육, 창업의도 등의 변수를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설문지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나.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자, 즉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질적 창업 의사가 있는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료 시점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 V. 실증분석

### 1. 기술통계량

<표 2>는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가 또는 소상공인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개설한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가 교육생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이다. 설문조사의 본 조사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고 312부를 회수하여 289부를 최종 연구대상인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

<표 2>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08	71.9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2	17.99
	여성	81	28.03		전문대 졸업(2~3년제)	81	28.03
연령	19세~24세	52	17.99		대학 졸업(4년제)	110	38.06
	25세~29세	86	29.76		석사	29	10.04
	30세~34세	65	22.49		박사	17	5.88
	35세~39세	52	17.99		업종	제조업	32
	40세~45세	34	11.77	도·소매업		72	24.91
종업원 수	1명~3명	125	43.25	서비스업		90	31.14
	4명~5명	104	35.99	정보통신업(ICT)		46	15.92
	5명~7명	37	12.80	숙박·음식점업		49	16.96
	7명~9명	23	7.96	합계	289	100.0	

### 2. 측정모형 검증

#### 가.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문항 사이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유지되는지 신뢰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석한다.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Nunnally and Bernstein(1994)는 신뢰계수가 .70 이상이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뢰계수가 .70 이하인 측정항목 1개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측정도구의 개념이 타당함, 즉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표 3> 신뢰성 분석 및 설문지 최종 문항

변수		초기 문항수	제거 문항수	문항 제거후 신뢰성	최종 문항수 및 문항번호		
					문항수	부	문항번호(변수항목번호)
독립변수	창업동기	기회동기	5	.878	5	I	1~5
		성취동기	5	.823	4		6~7, 9~10
		독립동기	5	.839	5		11~15
매개변수	기업가 정신	혁신성	5	.817	5	II	1~5
		위험감수성	5	.883	4		7~10
		진취성	5	.869	4		11~12, 14~15
조절변수	창업교육	5		.804	5	III	1~5
종속변수	창업의도	5		.819	5	IV	1~5
계		40	3		37		

나. 타당성 분석

(1)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은 측정항목 사이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하지만, 타당성 분석은 집중화 경향의 확인과 변수 사이 구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추출한 값, 공통성이 1에 근접하면 각 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50 이하의 설문항목은 설문구성에서 제외한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며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한 Varimax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식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communality)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설명된 총분산(variance), 즉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수(측정문항)의 분산 총합으로의 초기 고유값(eigenvalue), 즉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은 1.0 이상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이후 다 항목으로 구성된 연구 개념 등에 대해 단일차원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관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뜻한다. KMO(Kaiser-Meyer-Olkin)는 값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KMO 값은 .903으로서 변수 사이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르레트(Bartlett) 검정은 유의확률로 판단하는데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야 요인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형성검정치( $\chi^2$ )가 468.981이며 유의확률(p) 값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에 관한 설문 문항들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VE 값이 .5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있다고 평가되며, 해당 잠재변수가 자신의 하위구성개념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측정항목

과 해당요인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적재치와 연구단위에 의해 분산이 설명된 양을 측정하는 AVE 역시 모든 변수에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동일분산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One-Factor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일분산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측정항목이 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p < .01$  값을 나타내고 있다.

### 3. 상관분석

본 연구는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변수의 상호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상관분석 결과 기회동기와 성취동기, 성취동기와 독립동기 사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알 수 있다. VIF 값이 2.483~3.644의 구간에 있어 낮은 수준이므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표 4>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VIF
창업 동기	1. 기회동기	1							
	2. 성취동기	.375***	1						3.259
	3. 독립동기	.104	.316***	1					3.644
기업가 정신	4. 혁신성	.018	.275**	.302**	1				3.508
	5. 위험감수성	.166*	.125	.185*	.281**	1			2.483
	6. 진취성	.148	.176*	.163*	.218**	.216**	1		3.263
7. 창업교육	.159	.169*	.186*	.129	.133	.124	1		2.578
8. 창업의도	.148	.182*	.165*	.191*	.135	.136	.193*	1	3.387

주) \*\*\*  $p < .01$ , \*\*  $p < .05$ , \*  $p < .10$

### 4. 가설검증

#### 가. 창업동기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과 같이 창업동기의 각 하위변수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가설 1]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창업동기가 기술기반이 제공되는 젊은 소상공인에게 창업 욕구나 창업의도를 발현시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창업의도를 키운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이 창업동기의 각 하위변수가 기업가정신

가족기업연구 제5권 제1호

의 각 하위변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혁신 지향적인 문화를 갖게 하며(Antoncic and Prodan 2008),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관리하는 활동과 연계된다. Fishbein et al.(1980)는 창업의도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의 건설, 즉 창업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개인의 의지,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한다.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윤병선·김천규(2020), 기업가정신이 스타트업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강만구(201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설 2] “창업동기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표 5> 창업동기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종속변수 (창업의도)		종속변수(기업가정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 동기	기회 동기	.320*** (3.239)			.316*** (3.198)			.315*** (3.191)			.314*** (3.185)		
	성취 동기		.315*** (3.182)			.311*** (3.141)			.310*** (3.134)			.309*** (3.128)	
	독립 동기			.313** (3.040)			.309** (3.001)			.308** (2.995)			.307** (2.989)
성별 (남성=1)	.087 (.880)	.088 (.889)	.088 (.855)	.086 (.869)	.087 (.877)	.087 (.844)	.086 (.867)	.087 (.875)	.087 (.842)	.085 (.865)	.086 (.874)	.086 (.840)	
연령 (25세~29세=1)	.200* (2.026)	.198* (2.002)	.194* (1.887)	.197* (2.000)	.195* (1.976)	.191* (1.863)	.197* (1.996)	.195* (1.972)	.191* (1.859)	.197* (1.992)	.195* (1.968)	.191* (1.855)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53)	.147 (1.491)	.146 (1.425)	.142 (1.434)	.146 (1.472)	.145 (1.406)	.141 (1.431)	.145 (1.469)	.144 (1.403)	.141 (1.428)	.145 (1.466)	.144 (1.401)	
업종 (서비스업=1)	.166* (1.678)	.164* (1.662)	.170* (1.650)	.164* (1.657)	.162* (1.640)	.167* (1.629)	.163* (1.653)	.162* (1.637)	.167* (1.626)	.163* (1.650)	.162* (1.634)	.167* (1.623)	
종업원 수 (1명~3명=1)	.079 (.798)	.084 (.848)	.077 (.749)	.078 (.788)	.083 (.837)	.076 (.739)	.078 (.786)	.083 (.835)	.076 (.738)	.077 (.785)	.082 (.834)	.076 (.736)	
상수	3.298	3.362	3.360	3.256	3.319	3.317	3.249	3.312	3.311	3.243	3.305	3.304	
R <sup>2</sup>	.428	.438	.435	.422	.432	.429	.422	.431	.428	.421	.430	.427	
Adj R <sup>2</sup>	.390	.398	.399	.385	.393	.394	.384	.392	.393	.384	.391	.392	
F-value (유의확률)	5.801 (.000)	5.847 (.000)	5.813 (.000)	5.726 (.000)	5.772 (.000)	5.738 (.000)	5.715 (.000)	5.760 (.000)	5.727 (.000)	5.704 (.000)	5.749 (.000)	5.715 (.000)	

주) \*\*\* p<.01, \*\* p<.05, \* p<.10

한편, <표 5>의 통제변수로 연령을 25세~29세는 1, 그 외 연령은 0의 더미변수를 도입해 분석한 결과 연령이 종속변수에 체계적으로, 차별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량·허철무(2019)의 연구에서 예비청년창업가의 연령을 19세~39세로 넓게 본 연구와 비교되나 청년창업가의 특성을 나타낸 유사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청년소상공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밝힌 차별성이 있다. 업종은 서비스업은 1, 그 외 업종은 0의 더미변수를 도입해 분석한 결과 업종이 종속변수에 체계적으로, 차별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업종에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조업이 있으나 소상공인은 다르다. 본 연구의 청년소상공인은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는 업종이다. 선명옥·이우창(2013)은 소상공인이 경영성과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식업의

경우 원가관리전략, 서비스업의 경우 상품/서비스혁신전략, 제조업의 경우 마케팅차별화전략과 원가관리전략,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서비스혁신전략 등이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n Weizäcker(1980), Perry(1984), Mankiw and Whinston(1986)은 동질적인 제품시장에서 과잉진입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남주 외(2013)는 소상공인 주요 성과요인의 업종별 차이분석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성과요인은 음식·숙박업은 경영자의 사업경험과 전문성 및 시장성장성이 유의한 성과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도·소매업의 경우는 경영자의 전문성, 아이টে믹합성과 차별성의 자원특성 및 시장경쟁과 시장성장성의 환경특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경영자의 자발적 행동통제와 위험감수성향, 자금규모와 기술력 및 아이টে믹 차별성의 자원특성, 그리고 시장불확실성이 유의한 성과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의 더미변수를 도입해 분석한 결과 성별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차별성을 주지는 않았다. 성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 진출이 낮고(Simoes et al. 2016). Shinnar et al.(2014)는 성별에 따른 창업프로그램 설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Kalleberg and Leicht(1991)는 여성과 남성 사이 기업경영 성과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광성호·신용하(2000)는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CEO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재무성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Kalleberg and Leicht(1991), 광성호·신용하(2000)의 연구와 그 방향성이 같다. 학력을 4년제 대졸은 1, 그 외 학력은 0의 더미변수를 도입해 분석한 결과 학력이 종속변수에 체계적으로, 차별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인 청년소상공인이 연구개발(R&D) 등 심도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여 창업하려는 의도보다 저급기술을 다루면서 이를 연마해 점점 기술력을 축적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Cooper and Gimeno-Gascón(1992), Cooper et al.(1994) 등은 창업자의 학력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극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Cooper(1985), Sandberg and Hofer(1987) 등은 창업자의 학력이 경영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종업원 수를 1명~3명은 1, 그 외는 0의 더미변수를 도입해 분석한 결과 종업원 수가 종속변수에 차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대개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자본이 영세하고 규모가 적다고 판단할 때 소상공인 사업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업원 수가 기업규모의 대용변수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중요하다(황수정·신진교 2009; 전순영 2012; 박오원 2013).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핵심인재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 선호가 필수적이며, 이를 성공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창업교육은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Kourilsky 1995). 본 연구가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

가족기업연구 제5권 제1호

취동기, 독립동기와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유의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따라서 [가설 3]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표 6>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종속변수(기업가정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동기	기회동기	.319*** (3.230)	.322*** (3.261)					.318*** (3.223)	.321*** (3.255)					.318*** (3.217)	.321*** (3.248)				
	성취동기			.314*** (3.172)	.317*** (3.204)					.313*** (3.166)	.316*** (3.197)					.312*** (3.159)	.316*** (3.191)		
	독립동기					.312** (3.031)	.315** (3.061)					.311** (3.025)	.314** (3.055)					.310** (3.019)	.313** (3.049)
창업교육		.293** (2.968)	.296** (2.998)	.289** (2.923)	.292** (2.952)	.286** (2.782)	.289** (2.809)	.292** (2.962)	.295** (2.992)	.288** (2.917)	.291** (2.946)	.285** (2.776)	.288** (2.804)	.292** (2.956)	.295** (2.986)	.288** (2.911)	.291** (2.940)	.285** (2.771)	.288** (2.798)
상호작용	기회동기*창업교육		.286** (2.895)						.285** (2.889)						.285** (2.883)				
	성취동기*창업교육				.276** (2.787)						.275** (2.781)						.274** (2.776)		
	독립동기*창업교육						.265** (2.582)						.265** (2.577)						.264** (2.571)
성별 (남성=1)	.087 (.877)	.087 (.886)	.088 (.886)	.088 (.895)	.088 (.852)	.088 (.861)	.086 (.875)	.087 (.884)	.087 (.884)	.088 (.893)	.087 (.850)	.088 (.859)	.086 (.874)	.087 (.882)	.087 (.882)	.088 (.891)	.087 (.849)	.088 (.857)	
연령 (25세~29세=1)	.199* (2.020)	.201* (2.040)	.197* (1.996)	.199* (2.016)	.193* (1.881)	.195* (1.900)	.199* (2.016)	.201* (2.036)	.197* (1.992)	.199* (2.012)	.193* (1.877)	.195* (1.896)	.199* (2.012)	.201* (2.031)	.197* (1.988)	.199* (2.008)	.193* (1.874)	.195* (1.892)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48)	.144 (1.463)	.147 (1.487)	.148 (1.501)	.146 (1.420)	.147 (1.434)	.143 (1.446)	.144 (1.460)	.147 (1.484)	.148 (1.498)	.146 (1.417)	.147 (1.431)	.142 (1.443)	.144 (1.457)	.146 (1.481)	.148 (1.495)	.145 (1.415)	.147 (1.429)	
업종 (서비스업=1)	.165* (1.673)	.167* (1.690)	.164* (1.657)	.165* (1.673)	.169* (1.646)	.171* (1.662)	.165* (1.670)	.166* (1.687)	.164* (1.653)	.165* (1.670)	.169* (1.642)	.171* (1.658)	.165* (1.667)	.166* (1.683)	.163* (1.650)	.165* (1.666)	.168* (1.639)	.170* (1.655)	
종업원 수 (1명~3명=1)	.078 (.796)	.079 (.803)	.084 (.854)	.083 (.845)	.077 (.747)	.078 (.754)	.078 (.794)	.079 (.802)	.083 (.844)	.084 (.852)	.077 (.745)	.077 (.753)	.078 (.792)	.079 (.800)	.083 (.842)	.084 (.850)	.076 (.744)	.077 (.751)	
상수	3.289	3.321	3.352	3.385	3.350	3.384	3.282	3.314	3.345	3.378	3.344	3.377	3.275	3.308	3.338	3.371	3.337	3.370	
R <sup>2</sup>	.427	.431	.436	.441	.434	.438	.426	.430	.436	.440	.433	.437	.425	.429	.435	.439	.432	.436	
Adj R <sup>2</sup>	.389	.393	.397	.401	.397	.401	.388	.392	.396	.400	.397	.401	.387	.391	.395	.399	.396	.400	
F-value (유의확률)	5.784 (.000)	5.841 (.000)	5.830 (.000)	5.887 (.000)	5.796 (.000)	5.853 (.000)	5.772 (.000)	5.829 (.000)	5.818 (.000)	5.876 (.000)	5.784 (.000)	5.841 (.000)	5.761 (.000)	5.818 (.000)	5.806 (.000)	5.864 (.000)	5.773 (.000)	5.830 (.000)	

주) \*\*\* p<.01, \*\* p<.05, \* p<.10

주암·윤현중(2018)은 창업의도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학습자의 창업교육 기대가 일치할수록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창업교육은 모험심과 정열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심어주어 그 열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이다(박은주 2012). 윤남수(2012)는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창업동기 요인 중

성취욕구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창업교육과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는 윤남수(2012), 주암·윤현중(201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유의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따라서 [가설 4]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된다.

<표 7>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종속변수(기업가정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동기	기회동기	.320*** (3.239)	.321*** (3.247)	.320*** (3.239)	.320*** (3.244)	.320*** (3.239)	.320*** (3.241)												
	성취동기							.315*** (3.182)	.315*** (3.190)	.315*** (3.182)	.315*** (3.186)	.315*** (3.182)	.315*** (3.183)						
	독립동기													.313** (3.040)	.314** (3.051)	.313** (3.040)	.314** (3.042)	.313** (3.040)	.314** (3.042)
기업가정신	혁신성		.291** (2.944)						.288** (2.908)						.285** (2.768)				
	위험감수성				.290** (2.941)						.287** (2.905)						.281** (2.735)		
	진취성						.290** (2.938)						.287** (2.902)						.278** (2.703)
성별 (남성=1)	.087 (.880)	.087 (.882)	.087 (.880)	.087 (.881)	.087 (.880)	.087 (.880)	.088 (.889)	.088 (.891)	.088 (.889)	.088 (.890)	.088 (.889)	.088 (.889)	.088 (.889)	.088 (.855)	.088 (.857)	.088 (.855)	.088 (.856)	.088 (.855)	.088 (.855)
연령 (25세~29세=1)	.200* (2.026)	.200* (2.031)	.200* (2.026)	.200* (2.029)	.200* (2.026)	.200* (2.027)	.198* (2.002)	.198* (2.007)	.198* (2.002)	.198* (2.005)	.198* (2.002)	.198* (2.003)	.194* (1.887)	.194* (1.892)	.194* (1.887)	.194* (1.890)	.194* (1.887)	.194* (1.887)	.194* (1.888)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53)	.144 (1.456)	.143 (1.453)	.144 (1.455)	.143 (1.453)	.143 (1.454)	.147 (1.491)	.148 (1.495)	.147 (1.491)	.148 (1.493)	.147 (1.491)	.148 (1.492)	.146 (1.425)	.147 (1.428)	.146 (1.425)	.147 (1.427)	.146 (1.425)	.147 (1.425)	.147 (1.425)
업종 (서비스업=1)	.166* (1.678)	.166* (1.683)	.166* (1.678)	.166* (1.681)	.166* (1.678)	.166* (1.679)	.164* (1.662)	.165* (1.666)	.164* (1.662)	.165* (1.664)	.164* (1.662)	.164* (1.663)	.170* (1.650)	.170* (1.655)	.170* (1.650)	.170* (1.653)	.170* (1.650)	.170* (1.650)	.170* (1.651)
종업원 수 (1명~3명=1)	.079 (.798)	.079 (.800)	.079 (.798)	.079 (.799)	.079 (.798)	.079 (.798)	.084 (.848)	.084 (.850)	.084 (.848)	.084 (.849)	.084 (.848)	.084 (.848)	.077 (.749)	.077 (.751)	.077 (.749)	.077 (.750)	.077 (.749)	.077 (.749)	.077 (.749)
상수	3.298	3.307	3.298	3.303	3.298	3.300	3.362	3.370	3.362	3.367	3.362	3.364	3.360	3.369	3.360	3.366	3.360	3.366	3.360
R <sup>2</sup>	.428	.429	.428	.429	.428	.428	.438	.439	.438	.438	.438	.438	.435	.436	.435	.435	.435	.435	.435
Adj R <sup>2</sup>	.390	.391	.390	.391	.390	.390	.398	.399	.398	.399	.398	.398	.399	.400	.399	.399	.399	.399	.399
F-value (유의확률)	5.801 (.000)	5.816 (.000)	5.801 (.000)	5.810 (.000)	5.801 (.000)	5.804 (.000)	5.847 (.000)	5.862 (.000)	5.847 (.000)	5.856 (.000)	5.847 (.000)	5.850 (.000)	5.813 (.000)	5.828 (.000)	5.813 (.000)	5.822 (.000)	5.813 (.000)	5.813 (.000)	5.816 (.000)

주) \*\*\* p<.01, \*\* p<.05, \* p<.10

라.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

가족기업연구 제5권 제1호

한 결과 각각 유의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따라서 [가설 5]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된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으로 인한 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조직에게 혁신 지향적인 문화를 갖게 한다 (Antoncic and Prodan, 2008). Covin and Slevin(1989)은 기업이 경쟁력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감하게 행동하는 성향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Zahra(1991)은 기업가정신을 기업과 조직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진취적인 반응으로 규정하였고, Zahra and Covin(1995)은 기존기업이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얻는 방법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유경하(2025)는 창업교육서비스품질과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중속변수(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의도
창업동기	기회동기	.320*** (3.239)	.324*** (3.280)	.320*** (3.239)	.322*** (3.267)	.320*** (3.239)	.321*** (3.245)												
	성취동기							.315*** (3.182)	.320*** (3.237)	.315*** (3.182)	.318*** (3.218)	.315*** (3.182)	.316*** (3.194)						
	독립동기													.313** (3.040)	.317** (3.082)	.313** (3.040)	.316** (3.069)	.313** (3.040)	.314** (3.057)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	혁신성		.292** (2.958)					.289** (2.923)						.286** (2.781)					
	위험감수성				.290** (2.935)						.287** (2.899)						.283** (2.749)		
	진취성						.287** (2.911)						.283** (2.865)						.279** (2.717)
성별 (남성=1)	.087 (.880)	.088 (.886)	.087 (.880)	.087 (.886)	.087 (.880)	.087 (.885)	.088 (.889)	.089 (.895)	.088 (.889)	.088 (.894)	.088 (.889)	.088 (.893)	.088 (.855)	.089 (.861)	.088 (.855)	.088 (.860)	.088 (.855)	.088 (.859)	
연령 (25세~29세=1)	.200* (2.026)	.201* (2.041)	.200* (2.026)	.201* (2.039)	.200* (2.026)	.201* (2.037)	.198* (2.002)	.199* (2.017)	.198* (2.002)	.199* (2.015)	.198* (2.002)	.199* (2.013)	.194* (1.887)	.195* (1.901)	.194* (1.887)	.195* (1.899)	.194* (1.887)	.195* (1.897)	
학력 (4년제 대졸=1)	.143 (1.453)	.144 (1.464)	.143 (1.453)	.144 (1.462)	.143 (1.453)	.144 (1.461)	.147 (1.491)	.149 (1.502)	.147 (1.491)	.148 (1.501)	.147 (1.491)	.148 (1.499)	.146 (1.425)	.148 (1.435)	.146 (1.425)	.147 (1.434)	.146 (1.425)	.147 (1.432)	
업종 (서비스업=1)	.166* (1.678)	.167* (1.691)	.166* (1.678)	.167* (1.689)	.166* (1.678)	.167* (1.688)	.164* (1.662)	.166* (1.674)	.164* (1.662)	.165* (1.673)	.164* (1.662)	.165* (1.671)	.170* (1.650)	.171* (1.663)	.170* (1.650)	.171* (1.661)	.170* (1.650)	.171* (1.660)	
종업원 수 (1명~3명=1)	.079 (.798)	.079 (.804)	.079 (.798)	.079 (.803)	.079 (.798)	.079 (.802)	.084 (.848)	.084 (.854)	.084 (.848)	.084 (.853)	.084 (.848)	.084 (.853)	.077 (.749)	.078 (.755)	.077 (.749)	.078 (.754)	.077 (.749)	.077 (.753)	
상수	3.298	3.323	3.298	3.320	3.298	3.317	3.362	3.387	3.362	3.384	3.362	3.380	3.360	3.386	3.360	3.382	3.360	3.379	
R <sup>2</sup>	.428	.431	.428	.431	.428	.430	.438	.441	.438	.441	.438	.440	.435	.438	.435	.438	.435	.437	
Adj R <sup>2</sup>	.390	.393	.390	.393	.390	.392	.398	.401	.398	.401	.398	.400	.399	.402	.399	.401	.399	.401	
F-value (유의확률)	5.801 (.000)	5.845 (.000)	5.801 (.000)	5.839 (.000)	5.801 (.000)	5.833 (.000)	5.847 (.000)	5.891 (.000)	5.847 (.000)	5.885 (.000)	5.847 (.000)	5.879 (.000)	5.813 (.000)	5.857 (.000)	5.813 (.000)	5.851 (.000)	5.813 (.000)	5.845 (.000)	

주) \*\*\* p<.01, \*\* p<.05, \* p<.10

마.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는 전술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Hayes(2013)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5,000회 반복한 부트스트랩 표본의 편이수정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사용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본 효과이며, 직접효과는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이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의한 효과이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와 같이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결과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수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한 창업동기의 효과 검증

독립변수		Bootstrapping 추정치		Bootstrapping 95% CI		
		Boot B	S.E	LLCI	ULCI	
창업동기 (기회동기) <sup>1</sup>	총효과	.225	.031	.164	.286	
	직접효과	.179	.031	.118	.240	
	간접효과	전체	.050	.014	.027	.083
		(1)	.020	.010	.004	.044
		(2)	.029	.007	.015	.045
(3)	.002	.001	.001	.006		
창업동기 (성취동기) <sup>2</sup>	총효과	.137	.030	.076	.197	
	직접효과	.103	.027	.043	.162	
	간접효과	전체	.037	.013	.016	.065
		(1)	.034	.012	.015	.059
		(2)	.009	.006	.012	.017
(3)	.003	.002	.001	.009		
창업동기 (독립동기) <sup>3</sup>	총효과	.133	.025	.055	.151	
	직접효과	.114	.024	.060	.144	
	간접효과	전체	.027	.019	.012	.052
		(1)	.028	.016	.017	.025
		(2)	.015	.010	.009	.029
(3)	.014	.007	.004	.015		

주: 1) (1) 창업동기(기회동기)→기업가정신(혁신성)→창업의도, (2) 창업동기(기회동기)→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창업의도, (3) 창업동기(기회동기)→기업가정신(진취성)→창업의도  
 2) (1) 창업동기(성취동기)→기업가정신(혁신성)→창업의도, (2) 창업동기(성취동기)→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창업의도, (3) 창업동기(성취동기)→기업가정신(진취성)→창업의도  
 3) (1) 창업동기(독립동기)→기업가정신(혁신성)→창업의도, (2) 창업동기(독립동기)→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창업의도, (3) 창업동기(독립동기)→기업가정신(진취성)→창업의도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본 효과이며, 직접효과는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이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에 의한 효과이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와 같이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결과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수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24년도 청년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기업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교육받은 소상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가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고 유효표본 289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1, Model 4, Macro Model 7(Hayes 2013)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 1986)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창업의도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반성식 외(2013), 조혜덕·조성제(202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창업동기의 하위변수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가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윤남수(2012), 김경희와 김진영(201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창업동기(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와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교육의 조절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Clark et al.(1984), Timmons et al.(1987) 등은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촉진시킨다고 실증하였다. 양준환·김춘광(2020)은 창업교육이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혁신지향적인 문화를 갖게 하며(Antoncic and Prodan, 2008),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관리하는 활동과 연계되므로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Covin and Slevin(1989), Zahra and Covin(1995) 등이 실증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창업의도와 관련한 여러 이론은 사회인지이론과 도식이론(schema theory),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and Ajzen 1975), 지각된 행동을 통제변수에 포함한 계획적 행동이론(Ajzen 1991) 등이 있다. 창업의도가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에서 본 연구는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등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을 뒷받침한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통해 창업 교과과정의 개발과 그 철학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창업의도와 창의적 사고, 그리고 혁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소상공인에게 창업 성공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 점이다. 이를 통해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실제로 사업 준비를 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으나 잠재적인 창업가,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 또는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업 소유자에게 사업철학, 사업전략 등 경영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몰입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만구. 2018. 「기업가정신이 스타트업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마인드 및 창업실패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강재학. 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곽성호·신용하. “남성과 여성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 281-305.
- 권홍순·윤병섭. 2019.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 분석: 정부벤처캐피탈과 민간벤처캐피탈의 비교”. 「금융공학연구」, 제18권 제1호 : 167-192.
- 김경희·김진영. 2011. “예비 서비스 창업자의 동기요인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사이버 대학교 수강자를 중심으로”. 「경영정보연구」, 제30권 제4호 : 511-537.
- 김우중. 2016. 「창업가정신과 전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리터러시와 학습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정곤. 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정향·윤병섭. 2024.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보증연계 후속투자 증대효과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4권 제1호 : 51-95.
- 나상균. 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과정정보연구」, 제35권 제4호 : 251-268.
- 나상균·김태호. 2014. “소상공인의 경영교육 서비스 품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만족, 관계품질 및 재이용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5호 : 167-187.
- 박남규. 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박동수·구언희. 2007.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6호 : 2979-3011.
- 박오원. 2013. “핵심인재관리와 조직성과: 기업규모 및 종업원 참여제도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2호 : 389-409.
- 박은주. 2012.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재환·김용태. 2009.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 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 959-977.
- 박지유. 2014. 「창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멘토링을

-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반성식·배근우·장성희. 2013.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6호 : 2655-2677.
- 서성열. 2018. 「청년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선량·허철무. 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1호 : 117-137.
- 선명옥·이우창. 2013. “소상공인의 업종별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0집 : 305-322.
- 심완섭·이은재. 2015. “대학생의 온·오프라인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학술지 등재지 및 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6권 제4호 : 371-396.
- 안성영. 2015. 「중소규모 가족기업의 성장단계에 관한 사례연구: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양재장·남중현. 2015. “창업동기와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 준비행동, 자기효능감 그리고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 지역 창업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30권 제6호 : 47-66.
- 양준환·김춘광. 2020.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이중매개모형”.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3호 : 443-461.
- 양현봉·박종복. 2009.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 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 2011-159. 산업연구원.
- 양현주. 2012. 「국제기업가정신, 핵심역량,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국제화 간의 관계: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원혜숙. 2014.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유경하. 2025. 「창업교육서비스품질이 스마트제조 예비소공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인식 및 기업가정신의 이중매개효과와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윤남수. 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 1537-1557.
- 윤백중. 2012. 「대학생의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윤병선·김친규. 2020.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창업교육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3호 : 207-221.
- 윤지영·이은정.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와 기업가 성향이 창업의지와 창업준

가족기업연구 제5권 제1호

-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전문경영인연구」, 제16권 제4호 : 61-81.
- 이남주·허태규·이충섭. 2013. “소상공인 주요 성과요인의 업종별 차이분석에 대한 실험적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3호 : 187-207.
- 이대기. 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3권 제23호 : 3-9. 한국금융연구원.
- 이상길. 2018.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이승일. 2006.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예진·이기학. 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 267-287.
- 이유태. 2014. “대학생 현장체험학습(새가게운동)이 창업의도와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1호 : 135-157.
- 이혜진·김진수. 2019.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인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 13-23.
- 임아름. 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임정희. 2018. 「호텔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직원들의 혁신행동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극동대학교 대학원.
- 임진혁. 2017.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이 인지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임채윤. 2011. “청년창업 생태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년창업포럼 발표자료」. 산업연구원.
- 전덕영·김정향·윤병섭. 2025.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역량이 보증연계투자유치와 투자수혜 이후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금융연구」, 제14권 제1호 : 1-43.
- 전덕영·윤병섭. 2020. “소상공인 보증지원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0권 제4호 : 31-66.
- 전순영. 2012. “경영자 특성과 인적자원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 35-56.
- 전승연. 2018.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자 역량이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 정숙균. 2015.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 정헌배. 2017.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와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벤처창업연구」, 제12권

- 제1호 : 123-132.
- 조문연. 2014. 「기술창업기업 대표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조병주. 1996. “창업교육의 교과내용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 「중소기업연구」, 제 18권 제2호 : 157-184.
- 조혜덕·조성제. 2025. “중국 대학생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6권 제3호 : 266-274.
- 주암·윤현중. 2018.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제언”. 「인적자원개발연구」, 제21권 제3호 : 161-201.
- 최문경. 2015. 「여성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와 환경불확실성 및 경쟁강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한가록·장유진·이재은. 2021. “창업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16권 제1호 : 97-111.
- 황수정·신진교. 2009. “최고경영자 특성, 조직구조, 시장경쟁, 기술혁신 및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2호 : 987-1011.
- 허동현·오현주. 2025. “청년소상공인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가족기업연구」, 제4권 제2호 : 85-121.
- 허동현·윤병섭. 2025. “청년창업가의 개인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와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상업경영연구」, 제39권 제3호 : 97-131.
- 허봉선. 2015.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구성에 관한 통합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관계부처합동. 2011.4.15. 「희망한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안)」.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7.11.2.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보도자료.
- 창업진흥원. 2024.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23-2024 보고서」. 조사연구-2024,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 179-211.
- Aleisa, E., J. Recker, R. Liddle and T. Brown. 2013. *Startup Ecosystems: Study of the Ecosystem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Silicon Valley*. Toronto and Moscow. Project Report.
- Antonic, B. and I. Prodan. 2008. “Alliances, Corporate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and Firm Performance: Testing a Model on Manufacturing Firms”. *Technovation*, 28(5) : 257-265.

- Bălăceanu, C. and D. Apostol. 2013.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Human Development Paradigm". *Knowledge Horizons*, 5(1) : 61-66.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1173-1182.
- Baron, R. A. and S. Shane. 2005.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Small Business Resource Center*. Mason, Ohio: Thomson /South-Western.
- Bechard, J. P. and J. M. Toulouse. 1998. "Validation of a Didac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 317-332.
- Becker, S. A., M. Cummins, A. Davis, A. Freeman, C. H. Giesinger and V. Ananthanarayanan. 2017. *NMC Horizon Report: 2017 Higher Education Edition*. Austin, Texas: The New Media Consortium.
- Bird, B. J.. 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37-42.
- Brockhaus, Sr.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A., D. L. Sexton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ockhaus, R. H. and P. S. Horwitz. 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Sexton, D. L. and R. 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 Carsrud, A. L. and M. Brännback. 2009.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New York, N.Y.: Springer.
- Carsrud, A. L. and M. Brännback. 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 9-26.
- Clark, B. W., C. H. Davis and V. C. Harnish. 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 26-31.
- Cooper, A. C.. 1985. "The Role of Incubator Organizations in the Founding of Growth-Orient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 75-86.
- Cooper, A. C. and F. J. Gimeno-Gascón. 1992. "Entrepreneurs, Processes of F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Sexton, D. L. and J. D. Kasarda(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Pub..
- Cooper, A. C., F. J. Gimeno-Gascón and C. Y. Woo. 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 371-395.
- Covin J. G. and D. P. Slevin.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 Entrepreneurship Scale”. In Ronstadt R., J. A. Hornaday, R. Peterson and K. H. Vesper(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86: Proceedings of the Sixth Annual Babson College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Covin, J. G. and D. P. Slevin.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 75-87.
- Crant, J. M..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 42-49.
- Dickson, P. H. and K. M. Weaver. 1997. “Environmental Determinants and Individual-level Moderators of Alliance Us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2) : 404-425.
- Dutta, D. K., J. Li and M. Merenda. 2011. “Fostering Entrepreneurship: Impact of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in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 163-179.
- Fairlie, R. W. and J. Miranda. 2017. “Taking the Leap: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 Hiring their First Employe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26(1) : 3-34.
- Fayolle, A., B. Gailly and N. Lassas-Clerc. 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 701-720.
- Fishbein, M. A.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hbein, M. A., I. Ajzen and J. McArdle. 1980. “Changing the Behavior of Alcoholics: Effects of Persuasive Communication”. 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ritsch M. and P. Mueller. 2004. “Effect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udies*, 38(8) : 961-975.
- Hallam, C. R. A., A. Leffel and D. Womack. 2008.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IEEE Xplore, PICMET '08-2008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 Technology*. Cape Town, South Africa.
- Hay, M., L. W. Cox, P. Reynolds, E. Autio and W. D. Byarave. 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2002 Executive Report*. Kansas City, M.O.: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mieleski, K. M. and A. C. Corbett. 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 45-63.
- Kalleberg, A. L. and K. T. Leicht. 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1) : 136-161.
- Kets de Vries, M. F. R. and D. Miller. 1997. “Narcissism and Leadership: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In R. P. Vecchio(ed.). 1985.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Power and Influence in Organization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Kourilsky, M.. 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50(10) : 11-15.
- Krueger, Jr., N. F., M. D. Reilly and A. L. Carsrud.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 411-432.
- Lassen, A. H.. 2007.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mpirical Study of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nsiderations in the Creation of Radical Innovation”. *Managing Global Transitions*, 5(2) : 109-131.
- Lassen, S. R., M. M. Steele and W. Sailor. 2006. “The Relationship of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to Academic Achievement in an Urban Middle School”. *Psychology in the Schools*, 43(6) : 701-712.
- Liñán, F., and Y. W. Chen. 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 593-617.
- Locke, E. A. and G. P. Latham. 2004. “What Should We Do About Motivation Theory? Six Recommend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 388-403.
- Lumpkin, G. T. and G. G. Dess.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 135-172.
- Mankiw, N. G. and M. D. Whinston. 1986. “Free Entry and Social Inefficiency”. *Rand Journal of Economics*, 17(1) : 48-58.
- Marino, L., K. Strandholm, H. K. Steensma and K. M. Weaver. 2002. “The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trategic Alliance Portfolio Extensiven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4) : 145-160.
- Mehrotra, S. J., R. Chaudhary and H. Gupta. 2018. “The Banking Opportunity in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 *Journal of Applied Management-Jidnyasa*, 10(1) : 92-108.
- Miller, M.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 770-791.
- Morris, M. H. and D. L. Sexton. 1996. “The Concept of Entrepreneurial Intensity: Implications

- for Compan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 5-13.
- Nayak, P., B. Das and J. K. Panigrahi. 2018. “Intent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Value Creation for Start-up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Engineering & Technology*, 9(2) : 629-636.
-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 Perry, M. K.. 1984. “Scale Economies, Imperfect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2(3) : 313-333.
- Rae, D.. 2004. “Entrepreneurial Learning: A Practical Model from the Creative Industries”. *Education Training*, 46(8/9) : 492-500.
- Rantanen, T.. 2013.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in Uusimaa Region in Finl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Journal*, 2(4) : 48-65.
- Rees, H. and A. Shah.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1) : 95-108.
- Rippa, P. and G. Secundo. 2019. “Digital Academic Entrepreneurship: The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ies on Academic Entrepreneurship”.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46 : 900-911.
- Ronstadt, R.. 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 7-23.
- Ryan, R. M. and E.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 68-78.
- Sandberg, W. R. and C. W. Hofer.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 5-28.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Harvard University Press. M.A.: Cambridge.
-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N.Y.: Harper and Brothers.
- Sexton, D. L. and N. B. Bowman. 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 129-140.
- Shane, S.. 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2) : 141-149.
- Shapero, A. and L. Soko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In Kent, C. A., D. L. Sexton and K. H. Vesper(eds.)(1982).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innar, R. S., D. K. Hsu and B. C. Powell. 2014.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Gender: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Longitudi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 561-570.
- Shook, C. L., R. L. Priem and J. E. McGee. 2003. “Venture Creation and the Enterprising Individua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Management*, 29(3) : 379-399.
- Simoes, N., N. Crespo and S. B. Moreira. 2016. “Individual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ntry: What Do We Really Kno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0(4) : 783-806.
- Sobel, R. S. and J. C. Hall. 2008. “Institution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Americ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1): 69-96.
- Tarabishy, A. E., G. T. Solomon, L. W. Fernald and M. Sashkin. 2005. “The Entrepreneurial Leader’s Impact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in Dynamic Markets”. *Journal of Private Equity*, 8(4) : 20-29.
- Timmons, J. A. and S. Spinelli, Jr.. 2008.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8th eds.). Illinois: McGraw-Hill.
- Timmons, J. A., D. F. Muzyka, H. H. Stevenson and W. D. Bygrave. 1987. “Opportunity Recognition: The Core of Entrepreneurship”. N. C. Churchill et al.(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M.A.: Wellesley.
- Tran, A. T. and H. Von Korflesch. 2016.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0(1) : 17-38.
- Turker, D. and S. S. Selcuk. 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 142-159.
- Von Weizsäcker, C. C.. 1980. “A Welfare Analysis of Barriers to En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11(2) : 399-420.
- Walter, S. G. and J. H. Block. 2016. “Outcom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2) : 216-233.
- Zahra, S. A.. 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 259-285.
- Zahra, S. A. and J. G. Covin. 1995.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performance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1) : 43-59.

#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Junior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Heo, Dong-Hyun\* · Oh, Hyun-Ju\*\*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when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fluence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junior small business owners.

**[Design/Methodolog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 to June 30, 2025, targeting young prospective entrepreneurs who participated in the 2024 capacity-building education program conducted by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 valid sample of 289 was analyzed.

**[Finding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each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se sub-variables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ship—innovativeness, risk-taking, and enterprisingness—each.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ship was significant. Additio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betwee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was significant.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oderated by entrepreneurship educ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significant.

**[Research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entrepreneurial motivations, such as 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implies that young small business owners need a preparatory process to understand and immerse themselves in management processes, including business philosophy and strategy.

<Key Words> Junior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Ph.D., CEO, Sun Jin E&S Co., Ltd. First Author (ceodhheo@naver.com)

\*\* Professor, Keimyung Colleg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ohj430@kmcu.ac.kr)